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I

이혜성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 개발을 위해, 한국여성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들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종합하여 20대, 40대, 60대의 각 연령대별로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검사지를 544명에게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0대의 척도에서는 적극적 특성요인, 충동성 특성요인, 이기적 특성요인, 감각적 특성요인, 회망적 특성요인이 추출되었으며, 40대의 척도에서는 무기력한 특성요인, 무기력한 특성요인, 자상한 특성요인, 가족중심적 특성요인, 뻔뻔한 특성요인, 과시적 특성요인이 나타났고, 60대의 척도에서는 위축적 특성요인, 권위주의적 특성요인, 자애로운 특성요인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기존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인으로서의 특성, 각 연령대의 특성, 그리고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 서론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한국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우리 나라 여자들은 너무 극성스러워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접하면서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실제로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

실상 이러한 질문을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방법론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한국인의 성격 특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점이다. 한국인이 다른 국민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고 발달되는가를 설명

하는 발달심리학적인 입장과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발달 심리학적 이론은 환경적 결정론이나 생물학적 결정론, 또는 구조적 결정론을 반대하면서, 한 개인의 발달은 개인의 고유한 개체 발생학적 역사 뿐 아니라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나아가 계통 발생학적 역사까지를 반영하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특성은 우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영향력이 그 구성원간에 공통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기의, 어느 집단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일은, 그러한 성격이 그 사회가 겪어온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어떻게 발생되었고, 또한 현재 개인과 사회 집단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가운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지구화 시대에 한국인을 연구하는 특수주의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교 문화적 접근이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많은 비교 문화적 연구들이 가장 개별적인 접근에서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잘 예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서구사회와 비교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기준과 동일한 자를 사용하여 이해하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놓쳐 버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처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보편적인 틀을 찾아내고, 한국인을 동양이라는 문화권 속에서 이해할 때, 바람직한 동양인의 상에서 찾아가는 보편성은 바람직한 서양인의 상에서 찾아가는 보편성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동시에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연구

를 보면, 특수주의 논쟁 중 어느 한 쪽으로 환원시키려는 입장은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관념적, 주관적, 직관적 사변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정신의학자들의 임상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실증적 연구나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다. 이러한 연구에서 보고되는 한국인의 성격 특성은 인상적이긴 하지만, 연구자의 주관이나 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고,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심리 특성을 심리측정 면에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식으로 연구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윤태림(1964)(1971)이 있고, 김도환(1976)의 속담분석, 최재석(1994)이 있다. 실증연구로는 차재호(1980)(1983)와 이부영(1981)(1983), 그리고 김재은(1987) 등의 연구가 있다.

윤태림은 「한국인의 성격」(1964)과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1971)에서 한국인의 성격·의식구조의 특징을 체질인류학적 관점, 풍토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정치경제적 관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인은 풍토적으로 수용적이고 인종적이라고 하였다. 종교적으로는 무술적 경향이 불교·유교·정치 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일상 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생활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인은 유교의 영향으로 자아말살적·가족중심적·체면중시·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불교의 영향으로 주술적·기원적·현세 중심적 관념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며, 직관적 사고를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언어에 있어서도 이성적·추리적 사고를 표현하는 말이나 논리적 개념이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적다고 한다. 또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생활을 반성하는 점이 약하다고 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김도환은 「한국 속담의 심리적 연구분석」(1976)에서 우리나라 속담을 통해서 한국인의 의식·태도·성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속담 7,300개를 자료로 하여 (1) 화자의 심리적 의도 (2) 속담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3) 속담에 반영된 당위의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의 속담에서 나타나는 민중의식 중 주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빈곤의식이 강하며, 경제적 실리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관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또한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지는 양태를 보였다고 한다. 양반에 대해서는 선망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천인에 대해서는 멸시하였다고 한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면서도宿命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 낙관적이며, 현실 중심 사상을 보였다. 타인의 행과 불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미신과 편견에 관한 속담과 열등의식을 반영하는 속담 등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실증연구의 시초로는 차재호(198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차재호는 의식 및 성격을 표현하는 문장을 행동, 신념과 태도, 가치의 세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시대별로 조사하였다. 600명을 표본 대상으로 하여, 177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문헌분석을 통해서 얻은 구한말의 한국인의 전통적 성격 특징으로 84개 기술문, 의식의 특징으로 132개 기술문을 수록하였고, 계층간에 중복되는 것을 정리해서 모두 68개의 기술문을 수록하였다.

차재호는 1980년에 발표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1983년에는, 행동·신념과 태도 및 가치의 항목을 60개 추출하였다. 행동의 항목은 유교와 관련있는 특성들과 유교와 관련이 분명치 않은 것들로 나누어 보고하였다. 유교와 관련있는 행동 특성들로는, (1) 눈치본다 (2) 의존심 (3) 명분의

존중 (4) 상하의 구별 (5) 정겨움 (6) 사생활의 침범 (7) 손님대접에 후하다 (8) 감정과 의욕의 억제 (9) 추리력, 창조성의 결여를 들고 있다. 유교와 관련이 분명치 않은 행동 특성들로는 (1) 공사의 혼동 (2) 버릇없다 (3) 장기적 결심을 못한다 (4) 비합리적 사고 (5) 감시하지 않으면 법을 안 지킨다 (6) 화를 내야 말을 듣는다 (7) 종교심이 강하다 (8) 사치를 좋아한다 (9) 단정하다 (10) 용감하다를 들고 있다.

김재은(1987)은 광범위한 문헌연구 및 본격적인 실증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 풍토적 고찰, 문화·사상의 분석, 가치관·가치의식의 연구, 심리·사회학적 연구, 관념적 분석, 일반화분석, 외국인에 의한 연구 및 관찰과 같은 영역들에서 문헌 및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심리·사회학적 연구들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들 연구는, 한국인의 심성에 영향을 끼친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가 지정학적·풍토학적 영향, 둘째가 정치체제의 영향, 셋째가 유교사상의 영향, 넷째가 일제하 식민지 생활의 영향이다.

지정학적 영향으로 사대성·순옹성·열등감·체념의식·은둔성 등이 생겼다고 하였다. 일본제국의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순옹성과 반항성, 관존민비, 자학, 자조, 열등의식, 권위주의, 체념, 관 불신적 경향 등이 크게 일반화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오랫동안 유교적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가부장적 인간관계와 효의 개념, 사고의 비논리성, 주술적 경향, 자아말살적-가족중심주의, 권위주의, 체면의식이 의식과 행동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보았다.

김재은(1987)의 실증적 조사연구에서는, 1,2차에 걸쳐 문헌연구 및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3차 연구

에서는 각 지방의 인구비례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여, 2,400명에게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조사 결과, 이기적 권위주의, 질서행동, 인내성, 예절, 방만성, 자위적 비하, 미신숭상, 이기적 과시성, 인정주의, 비개방성, 전통 존중, 체면·형식주의들이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들로 밝혀졌다. 반응양식에 있어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권위주의, 자기관여, 비하의식, 과시성, 사교성, 공공성, 합리성, 예절의식, 남존여비사상, 적극성, 낙천성, 은둔성 등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은근성, 정서성, 내세지향성, 숙명관, 미신숭상, 소심성, 의존성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층간의 차이인데, 이것은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우선 나이가 많아질수록 권위주의적이 되고, 동조성이 높아지며, 형식을 존중하고, 체면의식이 강해지며, 인정주의적이고, 공공의식이 높아지며, 질서 의식이 깊어지고, 숙명론에 빠지기 쉽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중성이 높아지며, 계획적이 되고, 인내심이 강해지며, 가족중심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예절의식이 강해지며, 남존여비의식이 깊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도 있다. 즉 이기성, 경쟁의식, 감수성, 의존성 등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밖에 나이의 변화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는 자기관여, 비하의식, 과시성, 은근성, 정서성, 현세주의, 미신숭상, 적당주의, 소심성, 낙천성, 공격성, 책임의식, 타당성, 사대성, 행복관, 신의 등으로 나타났다.

최재석(1994)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서 한국이라는 집단내의 대부분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인은 다

른 어떤 집단보다도 가족을 중시하며, 개인은 가정에서 독립하기 어렵고, 가족내의 인간관계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상하의 신분서열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감투지향의식이 있다고 보았다. 감투가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감투보다 직무상 규정된 공적 행위 이외의 일을 더 많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의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도덕·법률·규칙을 어기고 자기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은 부당한 권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감투지향 의식과 함께 상하서열의식이 있어서 체면과 예절을 중시하며, 그리고 다 같이 자유로운 평등한 입장에서의 질서가 아니라 상하의 신분서열을 철저히 자각하여 이것을 외형적인 형식적 행동으로 표시해야만 하는 질서 의식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항상 상위자의 태도 표정을 탐색하여 눈치를 보게 되며 비위를 맞추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양의 덕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친소구분의 의식이 있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성과 이름, 나이, 고향, 학벌 확인, 자기와는 어떠한 정도로 친소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공동체지향의식은 개인생활을 무시하며, 집단이기주의를 낳게 한다고 보았다.

한편, 기존의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논의는 유교 윤리관과 관련해 이루어져왔고, 오늘날까지 사회의 곳곳에서 가부장적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더우기 지금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의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김홍숙(1986)은

사회 과학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피해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억압'이라는 전제로부터 여성에 대해 접근하고 있으며, 남녀 역할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불평등의 구조를 보여 주었다. 여성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여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데는 공헌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부정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나 긍정적 특성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이 여성의 특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연구할 경우 여성의 특성에 대해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여성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증가되고,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 구조 내에서도 부부간의 사소통 방식이나 자녀 양육 방식 등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은 우리 사회의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은, 변화하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주제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역동적인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개체 발생학적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문화적인 연구가 시사하듯이, 한 집단에 대한 이해는 그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사회,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집단이 가진 고유한 시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기존의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

한 인식 없이, 한국인의 일반적 특징만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재은(1987)의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에서, 심리적 특성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연령간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 장, 노년기의 연령대별로 한국 여성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들의 연령대별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 여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역사적 배경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발달이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입장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연구는 우리 사회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갈지를 예측하고, 또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은, 그동안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극소수였다는 점과, 한국 여성이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의미있는 단계라고 판단되어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될 척도의 타당성이 확인

된다면, 앞으로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심리측정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II. 연구문제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각 연령대별로 어떠한 구조를 나타내는가

III. 연구방법

1. 제 1차 pilot study

각 연령대별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 형용사를 기술하라는 내용의 개방형 질문지를 총 1020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510명, 여자가 510명이었으며,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40대, 60대가 각각 340명씩이었다.

2. 검사지 제작

제 1차 pilot study에서 보고된 형용사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각 연령대별로 찾아내어,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20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총 57문항이며, 40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총 53문항, 60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질문지는 각 형용사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3. 본 연구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검사지를 총 544명에게 실시하였다. 그 중 10부가 응답이 무성의하여 누락되고 나머지 53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시,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각 연령대별로 어떠한 구조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법을 사용하였

고, 공통분산(communalities)의 초기값은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제곱치)를 사용하였다. 분해방법으로는 단일주축분해법을 이용하였다. 사전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의미있는 구성요인이 몇 개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인 기준과 해석가능성 차원에서 의미있는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단일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고자, 총 151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순목(1995)은 측정변수의 측정결과에 공통분산 뿐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 공통요인분석모형을 택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모형 중 공통요인분석을 선택하였다. 공통분산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사용하였고,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서 단일 주축 분해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축소 상관행렬에 대한 주축분해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들이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의 구성요인으로서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누적 분산비율, 스크리 검사, 그리고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고유치가 1이상이고, 누적분산비율, 스크리 검사,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참고로 하여, 20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검사지의 요인수는 5개, 40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검사지의 요인수는 5개, 60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검사지의 요인수는 3개로 결정하였다.

다시 요인의 수를 지정한대로 요인구조를 산출하기 위해 기초 요인구조를 배리맥스(varimax)방식으로 직각회전시켰다. 간명성의 심리학적 원칙

을 고려하고 각 구성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 요인에서의 요인부하량이 크면서 다른 문항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요인부하량이 .3이하로 낮은 문항과 해석이 어려운 문항은 제외시켰다. 이런 문항선정 과정을 거친 후 20대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검사지의 문항수는 55문항, 40대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검사지의 문항수는 52문항, 60대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검사지의 문항수는 40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예비문항 중 선정된 문항만으로 구성된, 수정된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요인수를 재지정하여 다시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단일 주축 분해와 직각 회전을 이용하였다.

부록에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각 연령대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각각의 표에서는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공통분산 및 요인의 문항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표2에서는 각 연령대별 요인의 구조 및 요인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20대 척도의 요인을 살펴보면, 적극적 특성, 충동적 특성, 감각적 특성, 이기적 특성, 희망적 특성이 나타났다. 40대 척도의 요인을 살펴보면, 무기력한 특성, 자상한 특성, 가족중심적 특성, 뻔뻔한 특성, 과시적 특성이 나타났다. 60대의 요인을 살펴보면, 위축적 특성, 권위주의적 특성, 자애로운 특성이 나타났다.

V. 논의

지금까지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의 요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은(198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나이가 들수록

표1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의 단일주축분해 결과

연령	구성요인	신뢰도
20대	요인1: 적극적 특성	0.914406
	요인2: 충동적 특성	0.856367
	요인3: 감각적 특성	0.813565
	요인4: 이기적 특성	0.794756
	요인5: 희망적 특성	0.724703
40대	요인1: 무기력한 특성	0.831307
	요인2: 자상한 특성	0.837880
	요인3: 가족중심적 특성	0.821468
	요인4: 뻔뻔한 특성	0.822709
	요인5: 과시적 특성	0.731287
60대	요인1: 위축적 특성	0.914024
	요인2: 권위주의적 특성	0.828849
	요인3: 자애로운 특성	0.847527

표2 연령대별 요인구조 및 신뢰도

연령	요인번호	고유치	분산비율
20대	1	11.875038	44.69
	2	5.618236	21.14
	3	1.577726	5.94
	4	1.374129	4.63
	5	1.230889	3.68
40대	1	6.844987	30.36
	2	6.111198	27.10
	3	2.285221	10.13
	4	1.935223	8.58
	5	1.084872	4.81
60대	1	9.491279	50.44
	2	3.836996	20.39
	3	1.805365	9.59
	4	1.118329	5.94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김재은(1987)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권위주의적이 되고, 동조성이 높아지며, 형식을 존중하고, 체면의식이 강해지며, 인정주의적이고, 공공의식이 높아지며, 질서의식이 깊어지고, 숙명론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중성이 높아지며, 계획적이 되고, 인내심이 강해지며, 가족중심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예절의식이 강해지며, 남존여비의식이 깊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60대의 권위주의적 특성, 40대의 가족주의적 특성과 그리고 과시적 특성은 김재은(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60대의 위축적 특성과 40대의 무기력한 특성은, 김재은(1987)의 숙명론적 특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위축되고 무기력한 반면, 20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희망적인 특성이 나타난 것은 김재은(198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여진다.

한편, 김재은(1987)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써, 이기성, 경쟁의식, 감수성, 의존성 등을 들었다. 20대의 이기적 특성과 충동적 특성은 김재은(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40대나 60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상한 특성, 자애로운 특성 등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기심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0대의 뻔뻔한 특성은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김재은(1987)의 결과와 상반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 남성들의 특성이라면, 체면없이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40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김재은(1987)의 연구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20대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특징은, 남성들과는 무관한 특징이며, 20대 여성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0

대의 가족중심적 특성이 김재은(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요인내용을 살펴보면, 회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알뜰하다는 등의 여성만이 지니는 고유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요인구조를 연령별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 한국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 여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20대, 40대, 60대의 연령별 차이에 따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로는 20대의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특성·이기적이고 충동적인 특성, 40대의 무기력한 특성·자상한 특성, 60대의 위축적 특성·자애로운 특성을 들 수 있겠다. 한국인의 일반적 특징을 반영하는 요인으로는 40대의 가족중심적 특성·과시적 특성, 60대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만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는 20대의 감각적 특성, 40대의 뻔뻔한 특성을 들 수 있으며 40대의 가족중심적 특성의 요인내용 중 헌신적이고 회생적인 특성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한국인의 특성, 연령의 특성, 그리고 여성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대에서는 한국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40대나 60대에 비해 20대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특징을 덜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20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통제된 방법을 통해 20대의 특징들과 그 원인들에 대해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대의 감각적 특성, 40대의 뻔뻔한 특성과 가족중심적 특성 중 헌신적이고 회생적인 특징은 이전의 연구결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여성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한국인의 심

리적 특성에 대한 이전 연구들이 남성중심적 관점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를 타당화하여 한국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있어 심리측정적인 기초를 확립하고자, 구성타당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의 구조 및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화에 그쳤을 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제한적인 수이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교차타당화, 준거관련 타당화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구비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설정하여,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가 개발되면, 다른 성격적·심리적 특성들과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환(1976). 한국속담의 심리적 연구분석. 해양출판사.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홍숙(1986).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 과학 연구에서의 연구 추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태림(1964).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현암사
- 윤태림(1971). 한국인의 성격. 현대교육창서출판사.
- 차재호(1980).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 한국사회과학연구회의세미나 논문.
- 이부영, 차재호, 황필호(1983). 한국인의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채희(1998). 충동구매 경향성 척도개발과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1996). 심리검사법. 학지사.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부록 1. 수정된 20대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2	문항 내용
요인 1	41	0.66622	0.07602	0.23683	0.06441	0.04945	0.512316	자신감이 있다
	44	0.65765	0.02708	0.23499	0.05786	0.03518	0.493038	적극적이다
	37	0.65663	-0.05358	0.11578	0.05421	0.10999	0.427243	의욕적이다
	21	0.65601	0.07094	0.07882	0.05620	0.20378	0.360036	모험을 좋아한다
	45	0.63520	-0.05427	0.19036	0.10164	0.20430	0.321878	주관이 뚜렷하다
	33	0.63063	-0.07304	-0.04667	0.10908	0.20042	0.457276	야심이 있다
	47	0.60440	0.04260	0.07908	0.04040	0.22054	0.423640	진취적이다
	13	0.58585	0.01958	0.26871	0.21602	0.11020	0.474618	당당하다
	16	0.58411	0.12032	0.06526	0.15117	0.09210	0.391250	도전적이다
	3	0.55874	0.06122	0.15355	0.11566	0.04978	0.355370	개성적이다
	39	0.55614	0.11696	0.31306	0.30022	0.00711	0.51163	자기주장이 강하다
	28	0.55194	-0.00075	0.05443	0.14915	0.17885	0.361830	성취지향적이다
	56	0.54427	0.13163	0.41639	-0.10351	0.08611	0.505067	활동적이다
	42	0.52131	0.28986	0.31438	0.05913	-0.14626	0.479503	자유분방하다
	11	0.50654	-0.02963	0.16454	0.10695	0.24468	0.355841	능동적이다
	2	0.48891	0.17345	0.23349	0.21586	-0.15493	0.394236	개방적이다
	43	0.48833	0.46587	0.07802	0.13230	-0.07895	0.485323	저돌적이다
	31	0.36662	-0.05474	0.25693	-0.09359	0.18387	0.245987	솔직하다
요인 2	53	-0.10935	0.67373	0.15879	0.09123	-0.07786	0.505473	허황되다
	51	0.15192	0.62696	0.04897	-0.04168	-0.09595	0.429500	퇴폐적이다
	50	0.14649	0.62225	0.14651	0.01699	-0.18007	0.462832	충동적이다
	26	-0.01286	0.57028	0.03430	0.07594	0.02966	0.333213	불안정하다
	6	0.00659	0.54898	0.00777	0.36951	-0.02211	0.438513	경솔하다
	23	-0.03015	0.54648	-0.08852	0.20670	0.07323	0.355472	미숙하다
	27	-0.24522	0.54575	-0.14775	0.10361	0.06858	0.395247	비논리적이다
	48	0.15198	0.53201	0.06465	0.18470	-0.14646	0.462832	참울성이 없다
	46	0.10754	0.52448	0.14899	0.08188	-0.07958	0.321878	즉흥적이다
	24	0.21069	0.51858	0.04975	0.29002	-0.00801	0.399971	반항적이다
	35	-0.18826	0.48606	-0.12810	0.15206	0.13386	0.329153	유치하다
	54	-0.00289	0.46663	0.17954	-0.00077	0.06596	0.254334	혼란스러워한다
	12	-0.08424	0.44893	-0.03248	0.13295	0.12769	0.243667	단순하다
	52	0.35197	0.43165	0.35669	-0.05950	-0.08034	0.447428	편다
요인 3	29	0.33849	-0.02195	0.58222	0.18629	0.11686	0.502398	새련되다
	55	0.41878	0.09422	0.50795	-0.03619	0.15394	0.467281	활달하다
	20	0.34248	0.04909	0.49387	0.07361	0.25117	0.432116	명랑하다
	25	0.40870	0.11632	0.48241	0.02172	0.22445	0.464132	발랄하다
	19	0.08236	0.06889	0.47483	0.31610	0.00701	0.336963	멋내기 좋아한다
	36	0.04427	0.11867	0.45480	0.20410	-0.06420	0.268666	유형에 민감하다
	1	0.26658	0.08773	0.41810	0.24029	-0.06534	0.315581	감각적이다
	30	0.27823	0.10778	0.41764	0.20276	0.13147	0.321848	색시하다
	18	0.28483	-0.05807	0.41488	0.09423	0.33437	0.377310	매력적이다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2	문항 내용
요인 4	5	0.15887	0.40238	-0.00341	0.52883	-0.06022	0.470447	건방지다
	7	0.11677	0.15391	0.14248	0.48469	-0.01224	0.292697	계산적이다
	4	0.17803	0.14568	0.13053	0.47512	-0.04349	0.297591	개인적이다
	38	0.19895	0.41457	0.12686	0.44510	-0.03986	0.427243	이기적이다
	14	0.25453	0.37377	0.19678	0.41160	-0.08337	0.419581	당돌하다
	15	0.23181	0.24080	0.11688	0.40439	0.00599	0.288950	도도하다
	40	0.24739	0.35613	0.25639	0.39482	-0.01382	0.409844	자기중심적이다
	8	-0.02267	0.28607	0.13279	0.37757	-0.08072	0.292697	과시적이다
요인 5	32	0.17410	-0.04406	-0.00832	-0.14571	0.58932	0.400849	순수하다
	57	0.45741	-0.12929	0.14797	-0.01301	0.47785	0.476346	회망적이다
	10	0.37612	-0.08318	0.12590	0.11006	0.47645	0.403350	꿈이 많다
	49	0.15844	0.08878	-0.02909	-0.17129	0.44584	0.261945	청순하다
	22	0.34290	-0.16473	0.11455	0.14346	0.42617	0.360036	미래를 기대한다
	9	0.19087	0.05274	0.26758	-0.05638	0.41151	0.283336	귀엽다
	고유치	7.977692	5.450548	3.428153	2.654273	2.189405		
설명분산(%)	36.76	25.12	15.80	12.23	10.09			
누적설명분산(%)	36.76	61.88	77.68	89.91	100.00			

부록 2. 수정된 40대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2	문항 내용
요인 1	16	0.66685	0.03332	-0.03847	0.23443	0.00844	0.502314	무료하다
	33	0.64172	-0.00267	0.21473	0.18211	0.01535	0.491315	외롭다
	48	0.64081	-0.08046	0.15442	0.15370	0.04163	0.466318	허무하다
	34	0.61876	0.00551	0.15263	0.14557	0.00431	0.427396	우울하다
	15	0.61738	0.09680	-0.08232	0.15915	-0.02817	0.423432	무기력하다
	5	0.53341	-0.05500	0.13666	0.02938	0.09243	0.315633	공허하다
	23	0.48429	0.14726	-0.08364	-0.06009	0.12357	0.282097	소극적이다
	7	0.48335	-0.08759	0.12678	0.19076	0.14682	0.315311	권태롭다
	41	0.47711	0.02823	-0.03002	0.10097	0.08157	0.246187	자신감이 없다
	24	0.46255	0.20964	0.14942	-0.13656	0.08365	0.305870	순종적이다
	36	0.40778	0.00870	-0.07492	0.09276	0.19189	0.217399	의존적이다
	요인 2	32	0.04676	0.64875	0.14506	-0.09911	0.01604	0.454184
38		0.02700	0.62483	0.17848	-0.13988	-0.05716	0.445823	이해심이 많다
40		-0.00135	0.59798	0.23734	-0.07459	-0.01971	0.419862	자상하다
10		0.05175	0.59265	0.12618	-0.14897	-0.10112	0.402249	너그럽다
42		-0.00846	0.54568	0.22214	-0.04961	-0.01823	0.349976	자애롭다
20		0.02206	0.51836	0.21289	-0.08796	-0.06391	0.326329	사려깊다
14		-0.01801	0.51758	0.30447	-0.07377	-0.20183	0.407089	따뜻하다
47		-0.09879	0.51463	0.23734	-0.02933	0.03071	0.332741	편안하다
37		0.15167	0.46989	0.02115	0.03946	-0.00053	0.245805	이타적이다
12		0.05328	0.45675	-0.03192	0.07153	0.05864	0.221037	느긋하다
30		-0.13431	0.41469	0.10826	-0.09867	0.21336	0.256983	여유롭다
27		-0.15230	0.36195	0.34433	-0.11579	0.12742	0.302409	안정적이다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2	문항 내용	
요인 3	28	-0.03024	0.25659	0.57326	-0.14353	-0.13025	0.432950	알뜰하다	
	50	0.17563	0.19587	0.56963	-0.10420	0.04325	0.406419	현신적이다	
	53	0.10617	0.26381	0.55235	-0.11993	-0.08099	0.406898	희생적이다	
	22	-0.07685	0.14343	0.52403	0.02621	-0.17586	0.332700	생활력이 강하다	
	2	-0.05067	0.14600	0.52180	0.07187	-0.12425	0.316763	강인하다	
	1	-0.02645	0.11769	0.51804	-0.09726	-0.10852	0.304156	가족중심적이다	
	29	0.09046	-0.02083	0.50916	0.24876	-0.00782	0.329801	억척스럽다	
	3	0.18098	0.00514	0.47055	0.07375	-0.05612	0.262783	걱정이 많다	
	43	-0.00770	0.34820	0.46986	-0.13915	0.04138	0.363148	정이가 많다	
	35	0.14289	0.33614	0.43407	-0.07545	0.00726	0.327563	원숙하다	
	39	0.05893	0.13426	0.42245	0.02638	-0.00646	0.200696	자녀위주이다	
	19	0.13812	0.09248	0.41715	0.07128	-0.00995	0.206823	보수적이다	
	26	-0.08604	0.09204	0.40793	0.16999	0.07021	0.216112	실리적이다	
	51	0.04319	0.03703	0.32005	0.08273	0.11271	0.125217	현실태합적이다	
요인 4	46	0.18635	-0.06554	-0.06828	0.65240	0.03228	0.470349	채연이 없다	
	31	0.19201	-0.15836	0.00960	0.61345	0.19098	0.474833	염치없다	
	11	0.06128	-0.03015	-0.04274	0.55966	0.09999	0.329707	노골적이다	
	44	0.14944	-0.11014	0.19214	0.54909	0.15454	0.396758	주책맞다	
	18	0.10046	-0.13450	0.03034	0.54675	0.20290	0.369210	뻔뻔하다	
	9	0.00320	0.05878	-0.00217	0.54355	-0.08054	0.305400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17	0.27792	-0.06516	-0.05038	0.45029	0.29958	0.376536	변덕스럽다	
	45	0.27391	-0.17466	0.13177	0.42159	0.10597	0.311862	짜증을 잘 낸다	
	8	0.07861	-0.06672	0.15623	0.40119	0.31947	0.298057	극성스럽다	
	25	0.32872	-0.18748	0.04225	0.36268	0.20512	0.318606	신경질적이다	
	요인 5	6	0.19204	-0.04590	-0.00019	0.17799	0.60110	0.431988	과시한다
		52	0.01141	0.12388	-0.10575	0.13017	0.57203	0.370822	화려하다
21		0.22621	-0.12563	-0.07504	0.33645	0.53865	0.475922	사치스럽다	
13		0.13265	0.05320	-0.13959	0.06962	0.48120	0.276314	도도하다	
49		0.26029	-0.09237	0.01125	0.32217	0.44399	0.377334	허세를 부린다	
고유치	4.168289	4.129445	4.084237	3.489581	2.101934				
설명분산(%)	23.19	22.98	22.72	19.42	11.69				
누적설명분산(%)	23.19	46.17	68.89	88.31	100.00				

부록 3. 수정된 60대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h^2	문항 내용
요인 1	30	0.71516	0.05445	0.07196	0.477925	자신감이 없다
	25	0.63083	0.06991	0.05189	0.405524	위축되어 있다
	11	0.63011	0.13852	0.06837	0.420900	두려워 한다
	23	0.62558	0.11027	0.07280	0.408807	용기가 없다
	12	0.59648	0.24797	-0.09448	0.426209	무기력하다
	18	0.58971	0.28961	0.06742	0.436171	쉴습하다
	13	0.58926	0.31864	-0.07734	0.454740	무료하다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h^2	문항 내용
요인 1	27	0.58831	0.11624	0.01450	0.359829	의기소침하다
	37	0.58501	0.47522	-0.08319	0.574988	허무하다
	17	0.56787	0.17766	0.08065	0.360543	심약하다
	22	0.55932	0.27920	0.07679	0.396694	외롭다
	16	0.55474	0.17228	0.09131	0.345751	소극적이다
	34	0.54722	0.18769	0.09351	0.343420	채념한다
	28	0.54594	0.01965	0.04495	0.300461	의존적이다
	38	0.54127	0.32671	-0.08961	0.407743	허탈하다
	15	0.53246	0.19860	-0.00260	0.322962	불안하다
	41	0.45418	0.30203	0.05045	0.300047	후회스러워 한다
	32	0.44225	0.30712	0.03059	0.290838	죽음을 두려워한다
	19	0.43158	0.23861	0.04836	0.245530	어린아이같다
요인 2	2	0.09664	0.72606	0.03792	0.537941	고지식하다
	1	0.17064	0.64803	-0.05928	0.452579	고리타분하다
	14	0.19987	0.52359	0.00024	0.314093	보수적이다
	4	0.23822	0.50831	0.12284	0.330223	과거지향적이다
	6	0.11229	0.49169	0.02173	0.254838	권위주의적이다
	36	0.27965	0.49137	-0.13108	0.336837	폐쇄적이다
	40	0.19122	0.47913	0.31726	0.366785	회고적이다
	35	0.20819	0.43619	0.34110	0.349950	추억에 잠긴다
	3	0.33523	0.42676	0.02058	0.294924	공허하다
	21	0.23112	0.38641	0.14258	0.223060	완고하다
	10	0.32318	0.37944	-0.04881	0.250803	답답하다
	7	0.25372	0.35792	0.31021	0.288713	그리워한다
요인 3	31	0.00015	0.06239	0.68850	0.477925	자애롭다
	8	0.06082	0.02785	0.68774	0.477460	너그럽다
	29	0.09581	-0.09788	0.68360	0.486063	이해심이 많다
	33	-0.04836	0.07108	0.64804	0.427346	지혜롭다
	9	0.09809	-0.07124	0.62189	0.401448	다정하다
	20	0.10576	-0.04361	0.61664	0.393333	온화하다
	5	0.00423	0.02923	0.57436	0.330762	관대하다
	39	-0.08124	0.07274	0.56444	0.330481	현명하다
	24	0.00711	0.16434	0.47577	0.253411	원숙하다
	고유치	6.825248	4.134524	3.939956		
설명분산(%)	45.81	27.75	26.44			
누적설명분산(%)	45.81	73.56	100.00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the Scale of Korean Womens' Psychological Characters

Hae-s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cale of Korean womens' psychological characters. Opening questionnaire were asked for getting adverbs representing Korean womens' psychological characters. After integrating the data, the scale was made at each ages(for 20 years old, 40 years old and 60 years old people).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the scal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he result was that positive character factor, selfish character factor, unstable character factor, sensuous character factor and hopeful character factor were found in the scale of 20 years old people. Depressinve character factor, mild character factor, family-centered character factor, impudent character factor and display character factor were discovered in the scale of 40 years old people. Daunted character factor, authoratative character factor, and affectionate charactor factor were found in the scale of 60 years old people. These factors reflect all the character of Korean people, the character of each age, and the character of women.